

김포 애기봉평화생태공원 국내외 시선집중...왜?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21.09.04 08:27 수정 : 2021.09.04 08:27



김포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야외전망대 전경. 사진제공=김포시

【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김포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이 사전 관람예약에서 조기 마감을 앞둔 만큼 인기 고공행진을 보여 미목이 집중되고 있다.

심지어 신화통신과 함께 중국 2대 관영통신사로 손꼽히는 중국신문사(China News Service, CNS)가 방문하는 등 해외 언론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강하구에 인접해 있는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은 수도권에서 한강, 조강, 서해, 북녘 땅을 가장 가까이서 조망할 수 있는 탁 트인 경관을 자랑한다.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전시관과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전망대로 조성됐으며 검문소에서 전시관까지 1.4km의 걷는 길도 압권이란 평가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애기봉평화생태공원 방문 및 관람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공식 누리집 '애기봉평화생태공원(aegibong.or.kr)'에서 미리 사전예약을 해야만 한다. 김포시와 김포문화재단은 사전예약을 통해 10일부터12일까지는 일일 2회 각 30명, 14일부터 30일까지 일일 5회 각 50명씩 관람객을 맞이한다.

이후 운영점검기간을 거쳐 오는 10월7일 정식 개관식을 갖고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공간으로 공식 운영된다.

김포시와 김포문화재단은 개관을 기념해 오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입장료와 가상 현실(VR) 체험료를 받지 않는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4일 “평화를 염원하고 생태환경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는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이 드디어 문을 열게 됐다”며 “많은 분이 오랫동안 기다려준 만큼 대한민국 랜드마크로 손색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상시 방역요원을 배치하는 등 코로나19 안전에도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사전 관람과 관련해 세부사항은 운영위탁기관인 김포문화재단으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